

눈꽃세상으로 '혼저옵서예'

〈어서오세요〉



제주 '한라산 1100고지'

한라산 서쪽 해발 1100m에 위치한 1100고지.
1100도로 정점에 자리하고 있다.
1100도로는 한라산을 사이에 두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중문동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 국도였다. 우리나라 국토 가운데 해발 높이가 가장 높다.
계절별로 한라산의 다채로운 풍경을 담아내 빼어난 절경이 펼쳐진다. 마치 신이 선물한 뛰어난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밤하늘 별들을 선명하게 관측하는 장소로도 적합하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빛 공해가 적기 때문이다. 셀 수 없이 반짝거리는 영롱한 별을 바라보며 별 헤는 밤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겨울이면 눈 덮인 한라산의 하얀색, 신기한 남국의 정취에 빠져들게 한다.

눈꽃 명소

걷기만 해도 설원의 장관 눈앞에 눈썰매·트레킹 '모두의 놀이터'

한라산 허리인 1100고지는 겨울에 놓쳐서는 안 될 필수 여행 코스이다.
대한민국 가장 남쪽에 있는 제주에서 이곳은 눈이 내릴 때면 그야말로 겨울 왕국이 된다. 산에 오르지 않고도 볼 수 있는 눈꽃 명소가 펼쳐진다.
새파란 하늘과 새하얀 눈발이 어우러진 순백의 풍광은 매력적이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뽀뽀뽀 눈 밟는 소리, 새하얗게 펼쳐진 설원의 장관, 고요한 자연을 오롯이 느끼며 걸을 수 있는 곳이다. 나뭇가지를 감싸 안은 상고대는 그야말로 절경이다.
이곳에서 서 있으면 마음까지 깨끗해지게 만든다. 매서운 추위에도 고지대의 맑고 차가운 공기는 뱃속까지 상쾌하게 만든다.
눈이 쌓일 때는 주변 언덕이 썰매장으로 변신, 어린이들은 물론 가족, 연인들 간 겨울 놀이터로 각광받고 있다. 마치 눈꽃 터널을 지나는 드라이브 코스도 매력적이다.
눈 덮인 한라산의 품속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경관은 환상적이다. 깊어가는 한라산의 겨울을 사진과 영상에 담으면 더없이 행복한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한라산을 오르고 싶다면 1100도로에서 어리목과 영실 코스로 이동해 뒷세오름까지 등반하는 것도 좋다. 한라산 트레킹 코스는 성판악, 관음사, 돈내코 코스도 있다.
다만, 겨울 산행은 아이젠이 필수이며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입산 가능 탐방로 정보는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미리 확인해야 한다.
한편, 제주 선인들은 녹담만설(鹿潭滿雪)을 제주를 대표하는 경승지 영주십경 중 하나로 꼽았다. 한라산 정상 백담대에 내린 눈은 눈썰매까지 녹지 않는 풍경을 표현한 것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중문동을 잇는 1100도로는 1100고지를 정점으로 설경을 감상하기에 좋다.

습지

한라산 고원에 12만5511㎡ 습지 희귀·멸종위기 동식물 '생태 보고'

1100고지에는 습지보호구역이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아준다. 나무 데크로 산책로가 조성돼 걸으면서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다. 다양한 습지의 모습과 생태를 살피고, 사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좋다.
1100고지 습지는 2009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한라산 고원지대에 형성된 대표적인 산지습지로 면적은 12만5511㎡이다.
투수성이 높은 한라산의 지질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특이한 습지로 평가되고 있다. 현무암 특성으로 담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담수 기간이 길어 낮은 곳에 모여 있는 물은 야생동물의 중요한 식수원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는 한라산 고구 식물인 한라물부추를 비롯해 지리산오갈피가 분포하고 있다.
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매, 2급인 말뚝가리와 조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황조롱이, 두견, 제주도 특산종인 제주도롱뇽, 한라복망미들, 이매뚜기, 제주밀들이 등이 서식하고 있다.
통발과의 식충식물인 자주망귀개 자생지로도 알려져 왔는데 분포면적은 약 150㎡ 규모이다.

한라눈꽃버스 운행

3월 2일까지 80일간 운행 자가용 대신 안전 이용 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 설경을 찾는 관광객과 제주도민을 위해 한라눈꽃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겨울철에 등장하는 이 버스는 오는 3월 2일까지 80일간 1100번·1100-1번으로 찾아가고 있다.
1100번 노선은 제주버스터미널에서 한라병원-어리목-1100고지-영실지소까지 운행한다. 1100-1번 노선은 서귀포등기소에서 서귀포터미널-영실지소-1100고지-어리목까지이다.
한라눈꽃버스와는 별개로 정규 노선인 240번 버스도 제주버스터미널에서 1100고지를 경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구간까지 하루 18회 매일 운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겨울철 안전사고와 주차 공간 등을 고려해 자가용 대신 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제주일보·김재범 기자·
/사진 제주일보 DB

제주시와 서귀포시 중문동을 잇는 1100도로는 1100고지를 정점으로 설경을 감상하기에 좋다.